

물가 폭풍이후 달러도 숨고르기

■ 주간 동향: 긍정적 서프라이즈 기록한 7월 미국 물가지표

- ✓ 우려도 있었지만 7월 소비자물가 등 주요 물가지표가 예상외로 긍정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달러화도 약세를 보임. 소비자물가는 물론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 상승률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물가 정점 기대감을 높인 것이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함
- ✓ 유로화 가치는 달러 약세로 강세 전환되었지만 유로존내 천연가스 가격 불안과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강세폭은 제한됨
- ✓ 위안화 가치는 강세 흐름을 보임. 양안 리스크 진정이 일단 위안화 가치 반등에 힘을 실어 주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더불어 7월 소비자물가 이후 약화된 통화 완화정책 기대감 등이 위안화 가치 상승을 제한함
- ✓ 원/달러 환율은 7월 미국 물가지표 안도에도 불구하고 1,300원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1,300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보임

〈표〉 주요국 주간 환율 동향

	8월 12일 증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105.6	-0.93	10.41
달러/유로	1.026	0.75	-9.77
엔/달러	133.4	-1.18	15.94
역외 위안/달러	6.738	-0.41	5.99
원/달러	1302.5	0.32	9.56

■ 금주: 9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 폭을 둘러싼 논란 지속으로 달러화는 단기적 숨 고르기 흐름 예상

- ✓ 7월 각종 물가지표로 통해 물가 정점론이 탄력을 받았지만 9월 FOMC회의 금리인상 폭을 둘러싼 시장 예상은 여전히 팽팽, 즉 사이언트 지속과 빅스텝 전환간 주장이 팽팽함. 이에 따라 달러화 지수 역시 동 논란 지속으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
- ✓ 다만, 미국 증시 등 글로벌 증시의 안도 랠리가 지속될 공산이 높아 달러화는 강세보다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
- ✓ 위안/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보다 변동성 확대가 예상됨. 양안 리스크가 완화되었지만 실망스러운 7월 사회총용자액(시장 예상치 1조 3,500억위안 VS 실제치 7,561억 위안) 규모와 7월 경제지표 쇼크 등은 코로나19 재확산세와 함께 위안/달러 환율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임
- ✓ 원/달러 환율은 1,300원을 중심으로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주식의 추가 상승과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 지속 시에는 1,290원대 안착이 재차 시도될 공산이 높음

그림1. 긍정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7월 미국 주요 물가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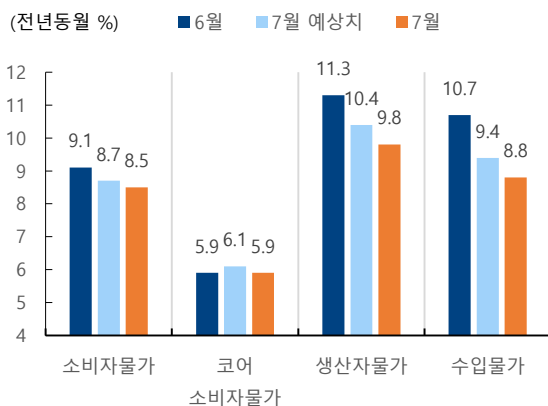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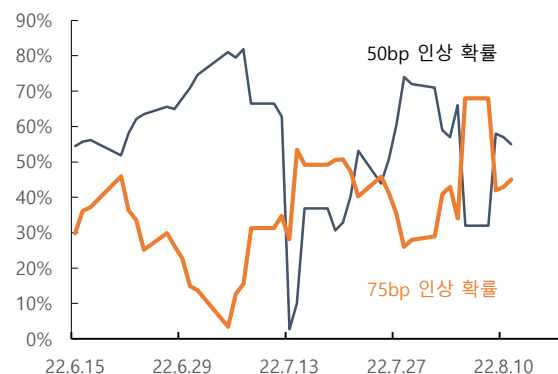


그림2. 9월 미 연준 금리인상 폭과 관련한 확률은 엮치락뒤치락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